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 M&A 홍수

대형기업 중심 생존화로 모색 ... Sunpower-First Solar 포함 다수

차세대 클린테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전문기술 또는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너제이에 위치한 태양광 전문기업 Sunpower는 최근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Sunray를 2억77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Sunpower는 유럽에 태양광 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Sunray와 협력해왔다. Sunpower는 태양광 전지 기술과 엔지니어링 부문을, Sunray는 자금 조달 부문을 맡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다 최근 합병기로 결정했다.

1985년 창립한 Sunpower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고효율 태양광 전지 제조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unpower는 2010년 상반기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Sunray의 인력 70% 가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대형 엔지니어링기업 아레바가 실리콘밸리의 마운틴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장비 생산기업인 오스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전문기업인 Opti Solar는 발전소 투자 자산을 애리조나의 First Solar에게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태양광 관련기업들의 인수·합병이 가속화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전반적으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수·합병 전략을 강구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6>